

도시공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입시설 연구

홍성권* · 이민우** · 이상민*** · 안명준****

*건국대학교 환경과학전공 · **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울대학교 대학원

Searching for Facilities and Service Programs for the Establishment of Urban Park Identification

Hong, Sung-Kwon* · Lee, Min-Woo** · Lee, Sang-Min*** · Ahn, Myung-June****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GAONE Landscape Design Group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new Urban Park Regulation encourages local governments to introduce new types of urban parks such as historic parks, cultural parks and neighborhood parks. However ambiguity among those parks in terms of main facilities and providing recreational programs makes it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andscape designers and planners, to adopt this new regulations. In this light, the present study aims to search for park facilities and programs defined by the new regulations, in order to satisfy users' demands for those parks with consideration to parks' unique characteristics. For these purposes, a conjoint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three hundreds participants. Sampled participants include the citizens of Seoul as well as current residents of Paju.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participants would like to have distinctive programs and facilities at these three new types of parks. However, no considerable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the levels of programs and facilities participants wish to have, due to unfamiliarity with, in particular, cultural and historic parks. Despite this in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ttribute levels, study results clearly suggest that residents would like to have new types of facilities and recreational programs.

Key Words: City Park, Conjoint Model

1. 서론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손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공원의 중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공원이 갖는 다양한 순기능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비 이용자들이라 할지라도 도시에 공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며, 도시 수준에서는 환경보전, 재해방지, 경관향상,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토지나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박찬용과 김용수, 2003; 김용근, 2004; 이시영, 2004; 이

Corresponding author: Sung-Kwon Hong,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Korea, Tel.: +82-2-450-3745, E-mail: skkong@konkuk.ac.kr

은업과 문석기, 2005). 이러한 이유로 높은 지가와 가용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은 양적인 확장을 계속해 왔지만, 대표적 도시공원인 근린공원의 이용율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들 간에 차별성이 없어 서로가 비슷한 패턴으로 개발되어서 도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박찬용과 김용수, 2003).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으로 인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조경계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도시공원법의 개정 요구가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이지만, 이 법에는 이용자들은 물론 공원설계자들조차 서로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공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원별 특징 및 성격을 명확히 구별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정된 도시공원법에 포함된 도시공원 중 독자성이 불분명한 역사공원, 문화공원 및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정 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차별화된 공원설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각 공원이 단 시일 내에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도시공원에 관한 선행연구

기존에 수행된 도시공원 관련 연구들의 주요 테마는 이용자 실태분석, 만족도, 이용 활성화 방안 등 기존공원의 효과적 이용 및 관리에 집중되었다. 여가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도 이 테마와 관련된 연구는 도시공원의 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에 차이가 있어 연구별로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도시공원의 이용실태는 조사지역과 상관없이 유사하였다(이시영과 허준, 2004; 김희우, 2007; 홍성권과 이상민, 2007). 도시공원은 계절과 관계없이 그리고 주말과 오후에 주로 이용되는 추세이다. 체류시간은 1~2시간 정도이고, 주된 동반자는 가족 또는 친구/애인이며, 운동이나 산책, 휴식,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자연감상을 위해 도시공원을 방문하였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의 조사에 의하면,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공 여가시설은 근린공원 또는 생활체육공원이었으며(32.8%),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 여가시설 역시 이들이었다(60.6%). 그러나 근린공원 또는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11개의 조사 대상시설 중 7번째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이 도시공원에 만족스럽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조경분야에서 수행된 도시공원 관련 연구에서도 이용만족

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시영과 허준, 2004; 김희우, 2007).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도시공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과모형을 사용해 수행되어 왔다(박승범, 1991; 현중영과 박찬용, 1992). 이들 연구에서는 자연성, 운동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휴식시설, 편의 및 관리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공원 이용에 대한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원 관리자들이 바라는 것은 영향요인들을 어떻게 실제 관리에 적용할 것인가이다. 이런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시영과 허준(2004)은 도시공원 이용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편의들이 실제로 공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행격자로 분석해, (a)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b) 우선 시정이 필요한, (c) 과잉노력을 지양해야 할, 그리고 (d) 저 우선순위인 추구편의들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반면, 새로운 유형의 공원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최기수 등(1995a; 1995b)은 도시공원을 포함한 근린 옥외여가시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권을 추정하였으며, 이 시설들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더 나아가 레크리에이션 이용 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박승범 등, 1999)와 방문객의 여가활동 유형별 만족도 등을 통한 공원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윤설민, 2006) 등 보다 실무에 가까운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주로 공원 이용 시 영향을 주는 만족요인들의 도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원설계 가이드라인으로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공원법에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유형의 공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공원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면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들의 종류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개정 도시공원법의 주요 내용

개정 도시공원법은 크게 7가지 정도의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기존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기존 도시공원법에서는 개별적인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서의 조성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녹지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공원과 녹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 없었는데, 도시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녹지의 보존과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녹지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녹화계약 및 배치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넷

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및 규모를 제시하였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체적인 공원 및 녹지의 확보 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보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도시공원법은 주민 1인당 최소 면적을 두고 있으며, 개발사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생활의 변화를 담기 위하여 도시공원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과거 도시공원은 5가지 유형이었지만 개정 도시공원법에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큰 구분 하에 도시공원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여섯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또는 자연환경 보전 목적의 대규모 녹지를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용도구역 성격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일곱째, 도시 내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의 산책공간 역할을 하는 선형의 연결녹지를 신설하였다(박문호, 2005).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유형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정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 종류를 크게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고, 생활권 공원은 기존의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소공원을 법정공원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제공원은 개념이 다소 생소하고 모호하여 실제 도시공원 설계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법 15조에서는 역사(문화)공원의 설치 목적을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으로, 근린공원은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사공원과 문화공원 간 설치목적의 차이는 제공해야 할 매력요소 뿐이다. 더욱이, 시행규칙 9조에서는 역사(문화)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두 공원 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근린공원은 두 공원에서 제공할 수 시설에 유희시설이 추가되었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제외 규정이 생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에도 주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근린공원적 설계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세 공원 모두 도시 안에 만들어질 것이어서 규모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 공원간의 차별화된 설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 컨조인트 모델

도시공원이란 잠재적 이용자들이 방문 시 기대하는 경험을 충족시켜야 하는 시설이다. 기대하는 경험의 종류는 속성에 해당하며,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공원이다. 소비자들은 그가 원하는 속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구매할 리 없듯이, 잠재적 공원 이용자들도 그가 기대하는 경험이 충족되지 않는 곳을 방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홍성권, 1993). 잠재적 이용자들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파악하며 이것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컨조인트 모델(conjoint model)이다. 이 모델은 대표적인 진술 선호모델(stated preference model)로써, 컨조인트란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속성(salient attribute)들을 개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중요 속성으로 가상대안을 만들어 그 자극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들의 선호(효용)를 평가케 함으로써, 개개의 속성별 수준(attribute level)들에 대한 효용(부분가치)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떤 시설과 서비스의 종류 및 그 수준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제공되어야 이용자들이 그 공원을 선호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Johnson, 1974; Green and Wind, 1975). 또한, 부분적 요인설계로 가상대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변수들간의 상관성이 배제되어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원치 않는 외부변수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Green and Srinivasan, 1990; 홍성권; 2000). 이러한 장점으로 이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상품 개발이나 수요 예측에 적용되고 있다(윤희정, 2007).

이 모델은 사람들이 대상지의 중요 속성들을 나름대로의 규칙을 사용해 종합함으로써 그곳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각 대상지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밝힌 가상대안별 선호로부터 속성별 수준 값인 부분가치를 계산해 낼 수 있다(식 1 참조). 그럼으로써, 연구자들은 특정 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변수별 수준들의 조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Johnson, 1974; Green and Wind, 1975; Mackenzie, 1992).

$$V_a = \sum_{k=1}^K \sum_{m=1}^M d_{km} X_{akm} \quad (\text{식 1})$$

V_a : 대안 a의 선호도(효용)

d_{km} : k번째 변수의 m번째 수준의 효용(부분가치)

X_{akm} : 대안 a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상 공원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대상지로 삼아야 하므로, 2009년 12월 준공예정인 경기도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구대상지로 하였다. 이 지구의 면적은 9,549,000m²이며, 계획인구는 124,345인(46,054세대)이다. 전체 면적의 33.6%는 주택용지이며, 30.9%는 공원녹지이다. 이중 개정된 도시공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 차별화된 설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면적은 각각 286,841m²(5개소), 106,708m²(8개소), 359,043m²(10개소)이다.

자료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이 2007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 대 일 개별면접으로 수집하였다. 서울시민과 파주시민들이 입주예정자이어서 지역별 입주예정자의 비율에 맞추어 25~59세의 남녀 300명(서울 200명, 파주 100명)을 표본추출하였다.

2. 중요속성 및 수준의 결정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원이어서 기존연구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시공된 예도 없어, 개정 도시공원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들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속성별 수준들을 설계 실무자와 상의해 결정하였다(표 1 참조). 그러나 연구에 사용할 속성 및 수준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작성하였다(Wittink *et al.*, 1982; Tumbusch, 1987; Green and Srinivasan, 1990; 박홍수, 1994).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는 속성별 수준의 효용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준의 개수가 많아지면 해당 속성의 중요도가 인위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속성별 수준의 개수가 많아지면 평가해야 할 가상대안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정산해야 할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속성별 수준의 개수는 2~4개 혹은 3~4개 이내가 적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각 속성별 수준은 이용자들이 알고 있으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서로 간에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속성 수준의 특징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들은 사진과 함께 설문을 제시하였다.

3. 부분적 요인설계

역사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의 속성별 수준들로 작성 가능한 가상대안의 수는 각각 9,216개 ($3^2 \times 4^5$)이다. 이렇게 많은 조합을 한 사람의 응답자들에게 평가 의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원별로 1/288 부분적 요인설계하여 32개씩의 가상대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응답자가 3개 공원에 대한 96개의 가상대안을 평가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설문평가 시간이 20~30분 정도 되려면 가상대안은 30개 이하이어야 적당하다(Green and Srinivasan, 1990; 박홍수, 199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원별로 작성한 32개씩의 가상대안 중에서 8개씩을 임의로 추출해 작성한 설문을 한 사람이 평가케 하였다(Hong, 2003). 따라서 공원별로 작성된 32개의 가상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의 응답자 필요하였다.

IV. 결과

유의수준을 0.1로 하여 유의성 있는 속성별 수준들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유의수준을 0.05로 사용하고 있지만 0.01과 0.1도 사용하고 있다. 어떤 유의수준이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 1형 오류(type I error, α)값이 작아지면 제 2형 오류(type II error, β)값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오류를 더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사용할 유의수준은 달라진다(Aaker *et al.*, 1995).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이기 때문에 $\alpha=0.1$ 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분석결과는 유의성 있는 속성별 수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에게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은 생소하기 때문에 각 공원의 특징 및 용도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속성별 중요도가 공원별로 크게 다른 것이다. 역사공원의 경우, 응답자들은 “서비스시설”과 “편익시설”을 중요 속성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문화공원에서는 “운동시설”, “서비스시설”, “편익시설” 및 “매력물”을, 근린공원에서는 “운동시설”, “서비스시설”과 “매력물”을 중요 속성으로 여기고 있었다.

1. 역사공원

응답자들이 역사공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속성으로 여기고 있는 “서비스시설”과 “편익시설”은 모두 건축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표 2 참조). 그러나 다른 공원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속성인 “매력물”은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과 “접근성”의 중요성이 낮지 않다는 점들을 함께 고려해 해석하면, 응답자들은 역사공원을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건축물 위주의 근린공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공원에 대한 특성 인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유의성이 높은 수준은 “편익시설”의 ‘취사시설’과 “운동시설”의 ‘지압로’에 불과하였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집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과 well-being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른 측면에서 이 결과를 해석하면, 응답자들은 “운동시설”과 “편익시설” 이외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이 공원에 반영되어도 상관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시설”의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이 속성에 포함되는 수준들 중에서 선호가 높은 것들을 실제로 반영하도록 노력

표 1. 공원별 속성과 수준

속성	공원	수준	변수명
접근성	역사 문화 근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이 충분하다.	·주차장
공원 분위기	역사 문화 근린	·울창한 숲이 있다.	·숲
		·다양한 수경시설이 있다.*	·수경시설
편의 시설	역사 문화 근린	·넓은 잔디밭이 있다.*	·잔디밭
		·취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바베큐장, 취사장).	·취사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스낵코너가 있다.	·스낵코너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유모차나 자전거 또는 인라인을 대여하는 시설이 있다.	·대여시설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테마놀이터가 있다.*	·전통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음악이나 미술이 놀이의 주제인 놀이터가 있다.*	·음악미술놀이
		·'숲 속 놀이터'가 있다.*	·숲속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용 놀이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분리된 놀이터
		·지도교사와 함께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다.*	·실내놀이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일반적인 놀이터가 있다.*	·일반놀이터
		·국궁이나 투호 등 전통 운동을 할 수 있다.	·전통운동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산책로 주변에 건강 지압로가 있다.	·지압로
		·체력단련 운동기구들이 있다.	·체력단련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있다.	·운동장
		·X-게임장이 있다.	·X-게임장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산책로 주변에 건강 지압로가 있다.	·지압로
		·체력단련 운동기구들이 있다.	·체력단련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있다.	·운동장
		·산책로와 그 주변에는 운동기구들이 있다.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당구장이나 탁구장 같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다.	·실내운동
		·골프연습장이 있다.	·골프연습장
어린이 놀이시설	역사 문화 근린	·축구나 야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다.	·운동장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벽이나 전시장이 있다.	·역사체험시설
서비스 시설	역사 문화 근린	·다양한 역사정보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다.	·역사문화센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료 보육원이 있다.	·유료보육원
서비스 시설	역사 문화 근린	·야외공연장이 있다.	·야외공연장
		·숲 속에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조각물
서비스 시설	역사 문화 근린	·다양한 문화정보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다.	·문화센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료 보육원이 있다.	·유료보육원
서비스 시설	역사 문화 근린	·야외공연장이 있다.	·야외공연장
		·수목원이나 생태학습원 같이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자연체험시설
서비스 시설	역사 문화 근린	·취미강좌를 들을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다.	·취미문화센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료 보육원이 있다.	·유료보육원
서비스 시설	역사 문화 근린	·야외공연장이 있다.	·야외공연장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꾸며 놓은 지역이 있다.*	·평화와 통일
매력물	역사 문화 근린	·한중일 3국의 전통 정원을 재현해 놓은 지역이 있다.	·전통정원
		·지역에서 출토된 역사문화재가 실내 및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고인돌, 구석기 유적 등)	·지역문화재
매력물	역사 문화 근린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주제로 꾸며 놓은 지역이 있다.	·지역인물

(표 1 계속)

속성	공원	수준	변수명
매력물	문화 근린	·입진강의 황포돛대를 주제로 꾸며 놓은 광장이 있다.	·황포돛대
		·농사체험을 할 수 있다.	·농사체험
매력물	문화 근린	·지역 유명예술인의 조각 작품들을 실내 및 야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지역조각물
		·첨단 산업과 관련된 전시시설이 있다(LCD 등).	·첨단시설전시
매력물	문화 근린	·벽천이나 바닥분수를 주제로 디자인한 광장이 있다.	·벽천광장
		·자연 계류를 주제로 디자인한 광장이 있다.*	·계류광장
매력물	문화 근린	·각종 야생화로 꾸민 넓은 정원이 있다.*	·야생화정원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회관이 있다.	·경로당

*: 사진과 함께 제시한 항목

해야 할 것이다.

2. 문화공원

문화공원은 역사공원에 비해 속성의 중요도가 고르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특히 다른 유형의 공원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속성인 "서비스시설"과 "매력물"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응답자들은 이 공원의 특징을 꽤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성"의 중요도가 낮을 뿐 아니라 넓은 주차장을 다른 수준들보다 선호하고 있어 도시공원이란 성격보다는 오히려 시내에서는 떨어진 곳의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성이 있는 수준들도 '주차장', 'X-게임장', '황포돛대' 및 '지역조각물'로 역사공원보다는 많았으며, 기존 공원에 없거나 흔치 않은 수준들을 선호하고 있었다. "매력물" 중에서 '농사체험'에 유의성이 없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젊은 층을 위해서는 'X-게임장'을, 다른 공원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황포돛대'와 '지역조각물'을 실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린공원

근린공원은 대표적인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이 공원의 특징 및 용도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 참조). "운동시설"과 "매력물"의 중요도가 높은 점과 "접근성"과 "공원분위기"의 중요성이 낮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문화공원에서도 같이 기존 공원들에서는 없거나 흔치 않은 수준들을 바라고 있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내놀이'가 그 예이다. 많은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변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변하지 않는 물리적 시설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 따라서 지도교사와 함께 연중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매력물"에 있어서는 모든 수준에

표 2. 역사공원 분석 결과

속성(중요도)	변수명	계수	t값	유의성
접근성 (12.66%)	자전거	-0.071	-1.47	0.14
	주차장	-0.047	-0.84	0.40
	보도	0.000		
공원 분위기 (4.10%)	숲	0.018	0.33	0.74
	수경시설	0.023	0.49	0.63
	잔디밭	0.000		
편익시설 (21.93%)	취사시설	0.123	2.22	0.03*
	스낵코너	0.072	1.29	0.20
	편의점	0.043	0.78	0.44
	대여시설	0.000		
어린이 놀이시설 (11.94%)	전통놀이터	0.025	0.45	0.65
	분리된 놀이터	-0.005	-0.09	0.93
	실내놀이	-0.042	-0.75	0.45
	일반놀이터	0.000		
운동시설 (14.80%)	전통운동	0.015	0.27	0.79
	지압로	0.147	2.64	0.01*
	체력단련기구	0.083	1.50	0.13
	운동장	0.000		
서비스시설 (26.25%)	역사체험시설	0.077	1.38	0.17
	역사문화센터	0.027	0.48	0.63
	유료보육원	-0.072	-1.29	0.20
	야외공연장	0.000		
매력물 (8.21%)	평화와 통일	0.027	0.48	0.63
	전통정원	-0.003	-0.06	0.95
	지역문화재	-0.018	-0.33	0.74
	지역인물	0.000		
상수		5.001	54.28	0.00*

*: $p < 0.1$

서 유의성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에 이들 수준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응답자들은 아파트 단지 내 시설들보다 더 양호한 시설들이 근린공원에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계수가 ‘-’로 정산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

V. 결론 및 고찰

표 3. 문화공원 분석 결과

속성(중요도)	변수	계수	t값	유의성
접근성 (2.43%)	자전거	0.012	0.25	0.80
	주차장	0.088	1.67	0.09*
	보도	0.000		
공원분위기 (10.77%)	숲	0.040	0.76	0.45
	수경시설	0.053	1.15	0.25
	잔디밭	0.000		
편익시설 (17.28%)	취사시설	0.033	0.63	0.53
	스낵코너	-0.052	-0.98	0.33
	편의점	-0.037	-0.69	0.49
	대여시설	0.000		
어린이 놀이시설 (7.52%)	음악미술놀이	0.008	0.16	0.87
	분리된 놀이터	0.013	0.25	0.80
	실내놀이	0.037	0.69	0.49
	일반놀이터	0.000		
운동시설 (21.54%)	X-게임장	-0.093	-1.77	0.08*
	지압로	0.013	0.25	0.80
	체력단련기구	0.005	0.09	0.92
	운동장	0.000		
서비스시설 (20.73%)	조각물	-0.027	-0.50	0.61
	문화센터	0.030	0.57	0.57
	유료보육원	-0.072	-1.36	0.18
	야외공연장	0.000		
매력물 (19.72%)	황포돛대	0.097	1.83	0.07*
	농사체험	0.025	0.47	0.64
	지역조각물	0.137	2.59	0.01*
	첨단시설전시	0.000		
상수		5.034	57.42	0.00*

*: $p < 0.1$

본 연구는 개정된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 중 차별화가 어려운 역사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이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설과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성 있는 속성수준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으며, 응답자들에게 생소한 공원일수록 이런 현상은 뚜렷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시공원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바라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1.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속성의 종류가 공원별로

표 4. 근린공원 분석 결과

속성(중요도)	변수	계수	t값	유의성
접근성 (7.00%)	자전거	0.042	0.92	0.36
	주차장	0.017	0.32	0.75
	보도	0.000		
공원분위기 (0.83%)	숲	-0.005	-0.10	0.92
	수경시설	-0.001	-0.02	0.99
	잔디밭	0.000		
편익시설 (4.67%)	취사시설	0.028	0.54	0.59
	스낵코너	0.035	0.67	0.51
	편의점	0.023	0.44	0.68
	대여시설	0.000		
어린이 놀이시설 (10.50%)	숲속 놀이터	0.063	1.21	0.23
	분리된 놀이터	0.047	0.89	0.37
	실내놀이	0.110	2.09	0.04*
	일반놀이터	0.000		
운동시설 (30.33%)	운동기구	0.025	0.48	0.63
	실내운동	-0.015	-0.29	0.78
	골프연습장	-0.157	-2.98	0.00*
	운동장	0.000		
서비스시설 (19.17%)	자연체험시설	0.052	0.98	0.33
	취미문화센터	-0.063	-1.21	0.23
	유료보육원	-0.008	-0.16	0.87
	야외공연장	0.000		
매력물 (27.50%)	벽천광장	0.165	3.14	0.00*
	계류광장	0.137	2.60	0.01*
	야생화정원	0.118	2.25	0.02*
	경로당	0.000		
상수		5.033	57.77	0.00*

*: p<0.1

상이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차별화된 도시공원들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새로운 유형의 공원들은 이러한 잠재적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응답자들은 새로운 수준들이 도시공원에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X-게임장', '지도교사와 함께하는 실내 놀이시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광장', '야생화 정원' 등이 그 예이다. 근래 아파트 단지 외부공간의 고급화 경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응답자들에게 "도시공원은 근린공원이다"란 인식이 지배

적이어서, 대부분의 공원들에서도 근린공원적 성격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원별로 유의성 있는 속성수준들이 많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자전거로 공원 갈 수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공원에 있어 도보 또는 승용차로 가는 것과 선호 차이가 없었다. "서비스 시설" 역시 대부분의 공원에서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시설"이란 결국 소위 '센터' 또는 '회관'이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며, 응답자들은 이런 규모의 건물이 공원에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4. 공공재로써 도시공원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시설들은 보육원과 지도교사와 함께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유료보육원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는 부정적이었으며, '실내놀이'는 일부 공원에서만 호의적이었다. 보육원의 경우에는 유료이었기 때문이며, '실내놀이'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공원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공원이 지역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공원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원설계자나 지자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잠재적 공원이용자들은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의 특징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각 공원이름이 의미하듯이, 역사 또는 문화적 요소가 주 매력물인 근린공원 정도로 인식하는 듯하였다. 개정 도시공원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별로 정체성이 정립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개정된 법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한 공원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각 공원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세 유형의 공원들은 설치 목적과 제공 가능 시설에 큰 차이가 없어 차별화된 공원설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신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공원들의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수립될 것이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공원별로 정체성의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공원들이 시공된다면 잠재적 이용자들은 물론 공원설계자들도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응답자들은 기존 도시공원에 없는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를 바라고 있었다. 도시공원은 대표적인 이용자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잠재적 이용자의 욕구에 기초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소득 향상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이용자들이 바라는 공원시설의 수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과학적 확률표본추출에 의한 자료 수집을 통해 잠재적 공원이용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다. 파주 운정지구란 지역적 한계로 인해 응답자들을 서울시민과 파주시민으로 한정하였고 파주지역에 알맞은 속성별 수준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도시공원은 설치될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새로 만들어질 도시공원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제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을 본 연구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 공원들을 포함시킬 경우, 응답자 한 사람이 평가해야 할 시나리오 개수가 많아져 설문조사가 어려워질 때문이다. 그러나 주제공원의 원래 취지인 '다양한 수요의 충족'을 살리려면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 공원에 제공되어야 할 시설 및 서비스 역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김용근(2004) 21C 도시공원의 Paradigm. 한국조경학회 04년 조경의 날 심포지움. pp. 9-26.
- 김희우(2007) 광주광역시 근린공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평가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5(4): 16-31.
- 박문호(200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해설. 도시문제 8월호: 107-114.
- 박승범(1991)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옥외위락기능과 만족도의 계량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4): 127-140.
- 박승범, 김승환, 남정철, 강영조, 이기철, 김석규(1999) 도시공원의 이용후 평가에 기초한 공원의 개발지표 설정: 부산광역시 암남공원을 사례로. 연구보고 22(2): 119-131.
- 박찬용, 김용수(2003) 대구시 도시근린공원의 특징에 따른 유형분류. 한국조경학회 2003 춘계학술논문발표회 초록집. pp. 1-4.
- 박홍수(1994) 신제품설계와 최적상품의 선택(유행화면, "현대의 마케팅과학"). 서울: 법문사. pp. 187-210.
- 윤설민(2006) 도시공원 방문객의 여가활동유형별 만족도 및 IPA를 통한 공원 만족도 평가: 올림픽공원을 대상으로. 고봉논집 39: 155-172.
- 윤희정(2007) 지역계획을 위한 도시민의 농촌여가 수요와 선택속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시영(2004) 도시 근린공원의 방문예약 요인. 한국조경학회지 32(1): 23-32.
- 이시영, 허준(2004) 도시근린공원의 추구편익에 의한 중요-성취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2(3): 114-125.
- 이은엽, 문석기(2005) 디지털도시에서 공원녹지의 새로운 접근방향. 한국조경학회 2005 춘계학술논문발표회논문집. pp. 105-109.
- 최기수, 김한배, 진양교, 진상철, 김석기(1995a) 대도시 주민의 근린 옥외여가시설 선택모형을 기초로 한 시설지 배분에 관한 연구(II). 한국조경학회지 23(1): 141-156.
- 최기수, 김한배, 진양교, 진상철, 허미선(1995b) 대도시 주민의 근린 옥외여가시설 선택모형을 기초로 한 시설지 배분에 관한 연구(I). 한국조경학회지 23(1): 123-139.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2006 여가백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현중영, 박찬용(1992) 도시공원시설의 이용자 만족 인과모형: 대구시 두류도시공원의 사례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3): 103-109.
- 홍성권(1993) 토지개발기술. 겨울호: 15-24.
- 홍성권(2000) Conjoint choice model을 이용한 주제공원 이용자들의 선택행동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8(1): 19-28.
- 홍성권, 이상민(2007)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원·녹지 기초조사 연구. 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 Aaker, D. A., V. Kumar and G. S. Day(1995) Marketing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 Son.
- Green, Paul E. and V. Srinivasan(1990) Conjoint analysis in marketing: New developments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s. Journal of Marketing 54(Oct.): 3-19.
- Green, Paul E. and Yoram Wind(1975) New way to measure consumers's judgments. Harvard Business Review 53(4): 107-117.
- Hong, Sung-kwon, Jae-hyun Kim and Seong-il Kim(2003) Implications of potential green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2): 323-341.
- Johnson, Richard M.(1974) Trade off analysis of consumer valu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1(May): 121-127.
- Mackenzie, John(1992) Evaluating recreation trip attributes and travel time via conjoint analy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2): 171-184.
- Tumbusch, James J.(1987) How to design a conjoint study. Proceedings of the Sawtooth Software conference on perceptual mapping, conjoint analysis, and computer interview.
- Wittink, Dick R., Lakshman Krishnamurthi and Julia B. Nutter(1982) Comparing derived importance weights across attribut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Mar.): 471-474.

원 고 접 수: 2007년 9월 4일

최 종 수 정 본 접 수: 2007년 12월 6일

3 인 의 명 심 사 필